

중 · 고령자의 생활시간 분석

채 화 영(서울대 박사수료)

김 주 희(서울대 박사수료)

이 기 영(서울대 교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중 · 고령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노동과 가사노동 등의 생산 활동의 참여는 중 · 고령자들에게 삶의 활기를 주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가시간 역시 그들의 삶에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9)를 이용하여,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중 · 고령자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고자한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9)의 55세 이상 중 · 고령자의 시간일지는 9,796개이고, 이 중 수입노동을 하는 55세 이상 중 · 고령자의 시간일지는 4,518개이다. 본 연구는 수입노동을 하는 55세 이상 중 · 고령자의 노동시간, 가사노동, 여가시간을 분석하여 중 · 고령자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55세 이상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이기 때문이다.(KDI 고령화사회보고서, 2007) 노동시간은 주당 수입노동시간으로 측정하였고,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여가시간은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과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평균, T-test, ANOVA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5세 이상 중 ·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모두 유의미한 성차를 나타냈다. 수입노동시간은 남성이 주당 45.0시간, 여성이 38.7시간이다.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이 평일 하루 평균 34.5분이며 여성이 평일 하루 평균 167.1분이다. 다시 말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하루 평균 54분 수입노동시간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하루 평균 132.6분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 넘는 노동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가치가 수입노동에 비해 현격히 평가절하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아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남성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가시간은 남성이 평일 하루 평균 273분, 여성이 평일 하루 평균 216분이다.

둘째, 55세 이상 중 ·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수입노동시간, 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은 55세~59세, 60세~64세, 65세~69세, 70세 이상으로 4집단으로 분류했다. 세 가지 시간 변수 모두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입노동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길었다. 수입노동시간의 경우, 55세~59세와 60세~64세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55세~64세는 변화 없이 수입노동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가족보살피기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고, 가정관리시간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의 경우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이 60세~64세가 가장 짧고, 70세 이상이 가장 많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많아지며, 노동시간에 따라 생활시간구조가 재편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은퇴 후 중 · 고령자의 정규 노동활동

의 소외가 예상되었으나, 은퇴 이후에도 주 40시간 정도의 수입노동을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도 주 32시간 이상 수입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활기 있는 노년생활을 위한 자발적인 노동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생계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의 하루 평균 5배였으며,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규범화되어 있었다. 셋째 여가시간은 성차가 있었지만,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가정 내 평등적 가족관계,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이 필요하다.